

사진기자의 땀짓

이젠 보기 힘든 놀이가 되어버린 '말뚝박기'



나주 금성산을 둘러보다 말뚝박기를 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앞사람 가랑이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상대편 아이들을 노려보다가 힘차게 굴러 뛰어가 '부웅' 날아 '땡' 앉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못한다고 욕먹으면서도 힘안드는 마부를 서로 하겠다고 다투기도 했죠.

뉴스퀴즈 61·62회 김양선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61·62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김양선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7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공으로 당첨됐습니다.

61·62회 뉴스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16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뉴스퀴즈

63. 광주제일고가 지난 3일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전국 대회 통산 20번째 우승의 금지탑을 세웠습니다.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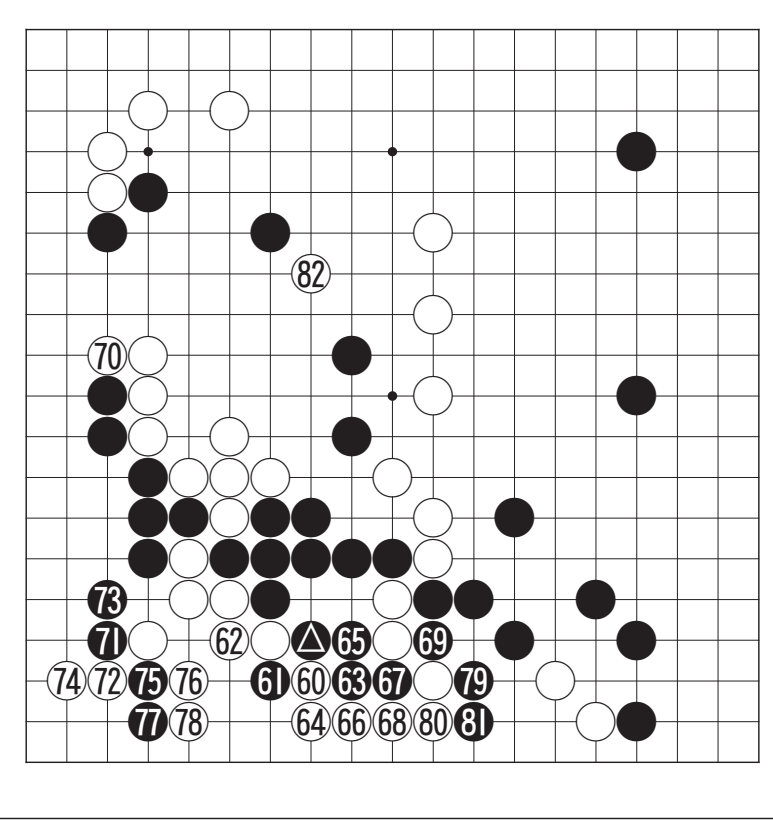
오늘의 유머

■보이긴 뭐가 보여? 한 여자가 초 미니스커트를 입고 외출을 하자 한 능글맞은 사내가 슬금슬금 여자의 뒤를 쫓았다.

■도둑의 비법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물었다. "저는 요 앞에 사는데 어제 저희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 가셨죠?"

■나도 필요해 데이트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한 청년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었지만 아무도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산신령도 남자? 뭇생긴 흥부 아내가 밭을 헐다며 호수에 빠졌다. 그러자 산신령이 미녀 셋을 데리고 나타나 흥부에게 물었다.



목진석의 도발 5보(60~82) KTGM 왕위전 16강 白 윤찬희 초단 黑 목진석 9단

바둑소식 조훈현, 물가정보 첫승 조훈현 9단이 7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한국물가정보배 B조 본선리그에서 진동규 3단을 200수 끝에 백 불계로 꺾고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899> I wouldn't count on it 난 기대를 걸지 않을 거야

오하오우 니혼고 <899> 新(あたらしい)ものを買(か)ったのよ 새것을 샀어요

니하오 쑹구위 <90> 她不肯说 그녀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자 이야기 <516> 門前成市 (문전성시) 문문, 앞 전, 이를 성, 저자 시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